

광주지속가능발전협-기후환경센터 협약



광주지속가능발전협회의(상임회장 김병완)와 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는 2일 서구 국제기후환경센터 강당에서 기후변화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회의 제공>

농협 광주본부, 설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홍묵)와 광주지방검찰청(지검장 김희재)은 설날 연휴를 앞두고 2일 광주지방검찰청사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소년소녀가장에 위문품



광주도시철도공사 정선수(오른쪽에서 세번째) 사장과 이경수 노조위원장 등은 2일 광산구 신흥동 및 송정1동 주민센터에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에게 설맞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도시철도공사 제공>

호남대, 제1 전투비행단 간부 자녀 영어캠프



호남대(총장 서강석)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체결한 군·학 협정에 따라 비행단 간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6주간의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진행한다. <호남대 제공>

“권투 좋아해 ‘선길문’ 만들어... 한국서 널리 알려야죠”

영암 출신 문성길 이름 딴 미국 밴드 두번째 내한공연 코졸렉시

영암 출신으로 링을 평평했던 ‘돌주먹’ 문성길의 이름을 딴 밴드가 있다. 문성길(53)씨는 목포 덕인고등학교에 입학해 뒤늦게 복싱을 시작했다. 입문 3년 만인 1982년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후 1986년 11월 미국 리노에서 열린 ‘제4회 세계복싱선수권대회’ 밴텀급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88년 8월 WBA 밴텀급 챔피언을 따냈고, 2년 뒤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을 지냈다. 프로통산 전적 22전 20승 2패. 그리고 16번의 KO 승리. 링 위에서 수없이 맞아도 한방을 노리고 상대를 향해 저돌적으로 파고드는 공격형 복서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그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길거리가 한산했을 정도였다. 한국의 간판 복싱스타 문성길의 이름을 딴 밴드 ‘선길문’(Sun Kil Moon)은 공교롭게도 한국인들이 아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마크 코졸렉이 결성한 인디밴드다. 마크 코졸렉이 ‘선길문’ 전에 결성한 밴드는 ‘레드 하우스 페인터스’다. 1990년대 활약한 포크·슬로코어 성향의 인디밴드로, 당시 독립음악 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득구 등 복서 노래 첫 앨범에 담아

다음달 5일 서울 홍대앞서 공연

문씨 “대성해 내 이름도 더 알려지길”

선길문이 2003년 첫 발표한 앨범 ‘고스트 오브 더 그레이트 하이웨이’는 마크 코졸렉이 관심을 둔 3명의 복서들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특히, 1982년 사망한 비운의 복서 김득구의 이야기를 담은 ‘득구 김’(Duk Koo Kim)이 대표곡이다. 마크 코졸렉은 “권투를 좋아해 이름을 지었다”며 “권투 연감에서 본 문성길의 이름이 지저분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선길문은 영어발음으로 선(Sun), 킬(Kill), 문(Moon)처럼 들려 ‘해가 달을 죽이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6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



문성길씨



미국의 인디밴드 ‘선길문’의 리더 마크 코졸렉. <RPM 제공>

했다. 2014년에 발매된 앨범 ‘벤지(Benji)’는 피치포크(Pitchfork), 스피(Spin), 언컷(Uncut) 등 세계적인 음악매체에 ‘올해의 앨범’으로 선정, 연말결산에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영향력 있는 음악지 팩트 매거진(1위), 웹진 팸메터스(2위), 웹진 스테레오웜(3위), 스피(6위), 피치포크(7위), 언컷(10위) 등 영미권 미디어의 호평을 받으며 그 해 최고 앨범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했다. 문성길의 이름을 따왔지만 한국보다 영미권에서 훨씬 더 유명한 밴드다. 선길문이 오는 3월5일 서울 홍대앞 예스24 무브홀에서 ‘불안한 밤’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지난해 첫 내한 공연을 주최하는데 이어 올해 두 번째 내한 공연이다.

평소 마크 코졸렉의 팬을 자처하는 백현진과 방준석의 프로젝트 듀오 ‘방백’도 이날 공연 오프닝 무대에 선다. 방백은 백현진과 전설의 밴드 유엔미블루로 시작한 ‘공동경비구역 JSA’, ‘베터링’, ‘사도’ 등 영화음악작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서울 등지에서 ‘문성길 복싱클럽’을 두고 있는 문성길 전 챔피언도 반색한다. 그는 “지인을 통해 ‘선길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매우 기분이 좋은 일이다”며 “선길문이 대성해 당당히 내 이름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번 내한공연에는 꼭 찾아가보겠다”고 말했다.

선길문의 공연 티켓은 2일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가격은 4만4000원, 문의 1544-1555. /박기용기자 pboxer@

광주·전남기자협회, 출범식 화환 대신 받은 쌀 복지시설에 전달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장필수)는 설 연휴를 앞두고 2일 광주시 남구 광주문화재단 발간기자협회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쌀을 전달했다.<사진> 쌀 전달식에는 장필수 회장을 비롯해 광주

복지재단 황현철 장애인지원단장, 에그리나 장애인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김용근 원장,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호 소장, 광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연옥 소장, 하림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임상안 센터장이 참석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앞서 지난달 20일 열렸던 광주·전남기자협회 출범식에서 화환 대신 쌀을 기증받았고, 이날 쌀 기증식을 통해 광주지역 4개 복지시설에 20kg 쌀 35포대를 전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수지씨 한국 작가 최초로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 올라

‘파도야 놀자’, ‘그림자 놀이’의 그림책 작가 이수지가 올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Shortlist)에 올랐다고 출판사 비룡소가 2일 밝혔다. 이수지씨는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은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가 2년마다 수여하는 상으로,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이수지는 ‘동물원’, ‘거울속으로’, ‘파도야 놀자’ 등을 출간하며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 이름을 알렸다. 작년 미국 작가 버나드 외버와 함께 펴낸 ‘아빠, 나한테 물어봐’는 뉴욕타임스의 올해 주목할만한 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안데르센상 최종 수상자는 오는 4월 4일 이탈리아에서 발표된다. /연합뉴스

인사

◆대법원 ◇고등법원장 정보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정보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설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대전가정법원장 이내주 ▲광주가정법원장 장재운 ▲인천가정

법원장 안영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성낙승 ▲부장판사 강영호 성기문 조경란 조혜현 최성열 김주현 박형남 김장보 홍승면 권기훈 심준보 김승표 이원범 정선재 배형원 윤종구 천대업 서경환 한규현 정준영 임성근 윤준 김홍준 이동원 김재호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용석 ▲부장판사 백강진 이은훈 윤승은 이동근 이은한 최인규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 김관문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김찬도 박효권 김종호 정창호 권순형 최인석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한 ▲부장판사 노경필 박병철 마용주 구희근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환수 ▲부장판사 김우수 박형준 오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대웅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배준현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차문호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종훈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수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 ▲선임재판연구관 김현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강승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보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승석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재영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법원도서관장 김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공영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주시 ◇국장급 정보 ▲덕진구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라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익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충진회

▲하동정씨 장령공파 종회(회장 정이현) 성묘 및 신년 하례회=13일(토) 오전 11시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영사재 문의 010-8649-5011.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회(회장 이철환) 이화월례회의=16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동창회

▲목포고등학교 제5회 동창회(회장 최창열) 월례회=5일(금)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

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월 27(토) 오후 1시30분~5시, 광주시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호심관 9층 904호, 양

택,음택,수택,나경·입향문,비결명당,장법요강등이론과현상, 영산강의(책자무료 제공), 접수 및 문의 : 010-3609-8117.

▲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양성과정 수료 후 교육 강사로 활동가능한 일반 성인·퇴직교사·강의 경력자 등 19일(금)까지 10명 모집, 광주시청 행복실에서 4일간 교육, 문의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608-8920.

▲(사)대한노인회광주지역연합회 노인지도자대학 30기 수강생=심신이 건강한 65세 이상 남·여로 1년 과정, 매주 수요일 2시간, 수업료 및 교재 무료, 29일(월)까지 접수마감, 문의 062-652-7374.

▲설현차문화연구원=농차, 중국차, 흥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안쪽 관리사무소연 062-512-5788, 062-262-1542.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장영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부음

▲김복천씨 별세 최용석(MBN 광주 주재기자)씨 부부상=발인 3일(수) 완도군 삼성장례식장 제2분향실 061-555-4455.

▲이정호씨 별세 한석·한철(무진기연 부장)·한용·한중(광주지역고학교 교사)·승미(광주진월초 교사) 부친상 박대귀(호남대 행정부처장)·정민희(광주시 남구 총무과)씨 부부상=발인 4일(목)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스카이장례식장 062-951-1004.

Advertisement for a funeral home (삼가故人の冥福을 빕니다) listing various funeral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yukun Funeral Home (Myukun Jang).